희망의 날 지방선거 D-12 북구청장 후보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저소득 복지 확대·일자리 창출 공방

광주일보와 KBC는 18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동안 열린우리당 이형석, 한나라당 김천국, 민주당 송광운, 민노당 오창규, 무소속 나정만 등 5명의 광주 북구청장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저소득층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이형석 후보 김천국 후보 송광운 후보 오창규 후보 나정만 후보

광주일보와 KBC가 공동주최한 광주 북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18일 오후 5시 50분부터 KBC 보도국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형석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복지확대
김천국 공장 유치 통한 저소득층 지원
송광운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기 완공
오창규 이동보건소 건립 기존 병원과 협력
나정만 청소년 유스호스텔·실버타운건설

◇모두 발언

▲나정만=두 번의 북구의원 경력을 거치면서 북구 살림을 눈여겨 보고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살기좋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송광운=30여년간 공직생활을 광주시 감사실장·도시계획국장, 광산구청장 등, 중앙에서는 내무부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내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준비된 후보다.

▲이형석=단순 행정가가 구청장이 되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장은 행정과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매개자로서,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탁월한 식견과 추진력을 갖춘 경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천국=이제 한나라당에도 사랑을 줘야 한다. 야당의 힘이 있어야 북구가 발전한다. 모든 게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또 타협하면서 일을 배워가겠다.

▲오창규=5·18 정신, 광주 정신은 민주·인권·평화 정신이다. 올해 열린우리당은 평택에 군을 투입, 제 2의 5·18을 자행했다. 누가 5·18 정신계승의 적임자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공통질문

▲사회=북구는 예산의 43%가 복지비다. 저소득층 생활 대책은.

▲이형석=지방세법 개정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발굴, 책정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지역병의원을 연결한 병적 공동관리시스템 도입, 정기검진 지원 확대,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한 참여복지와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김천국=공장을 많이 유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생계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나정만=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구재정은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등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복지마을 특구지정을 받아 100%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송광운=재원 염출이 중요하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창규=일자리·소득·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소가 북구에 하나뿐이다. 동네 보건소를 건설해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또 이동보건소도 건립하겠다. 기존 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할 것이다.

◇상호정책토론

▲이형석=지난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더욱 불편이 가중된다. 모든 북구 주민이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버스 운행 계획을 세웠다. 또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발굴, 책정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지역병의원을 연결한 병적 공동관리시스템 도입하는 한편 정기검진 지원 확대와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을 약속한다.

▲송광운=병적자료 공동관리방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형석=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해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김천국=좋은 공약이다. 청장이 되면 가슴에 와닿는 행정을 해라.

▲이형석=저는 17년간 지역 금융기관 근무하면서 경제혁신 마인드를 구축했다. 또 지난 8년간 의정활동과 전국 최연소 의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욕적인 혁신작업으로 광주시의회를 전국 최우수의회로 이끌었다. 북구를 전국에서 으뜸 구로 만들겠다.

▲나정만=청소년 유스호텔을 건립하고 실버타운을 조성하며, 복지예산 전액을 국비 및 시비로 대체하겠다.

▲오창규=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나정만=유스호스텔 120억은 구비 30억원, 민자 90억원으로 충당하겠다.

▲송광운=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선 첨단산업단지 2단계를 조기 완공하고, 다음에는 행정혁신을 통해 참여자치를 이룩하겠다. 또 교육북규를 만들어 교육에서 으뜸 구로 만들겠다. 교육특구 문제는 학부모가 염원하는 것이다.

▲나정만=북구청에는 청장 관할 공기업이 없는데.

▲송광운=자치제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모든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중장기 과제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민관합작으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서비스하겠다.

▲김천국=행정혁신이 무엇인가.

▲송광운 = 행정혁신은 주민이 행정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해야 한다. 또 800여명의 공무원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시와 구청간의 과감한 인사교류도 필요하다.

▲오창규=차별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또 대형할인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 서민을 위한 구청장 되겠다.

▲송광운 =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방향은.

▲오창규=구청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31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기업유치로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단지 추진

■ 영광군수

정기호 (51) 민주당

강종만 (51) 무소속

	정기호 (51) 민주당	강종만 (51) 무소속
현직	의사	금융업
학력	조선대 의과대학	전남대 행정대학원
주요경력	제7대 전라남도 의회의원	제 2,3대 영광군의원
병역	육군 중위	육군일병 의무만료
재산	3억141만5천원	4억5천175만5천원
주요공약 (3가지)	-농어민의 경쟁력이 좋은 영광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영광 -공무원의 서비스가 좋은 영광	-활기찬 경제도시 영광 건설 -관광문화도시 영광건설 -교육복지도시 영광건설

'3선 연임 제한'으로 현 군수의 출마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찍부터 표심 선점 경쟁이 벌어졌었다.

민주당 지지세가 탄탄하지만 같은 당 소속 11년 단일 군수 체제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찬반 대립과 갈등의 앙금이 채 가시지 않아 이를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제7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백수읍 출신 동갑내기간 맞대결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민주당 정기호 후보는 영광기독·신하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민주당 함평·영광지구당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무소속 강종만 후보는 공무원과 백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영광군의회 의원·의장을 거쳤다.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전남도의회에 나란히 입성했다.

민주당 정 후보는 "전국 제1의 세일즈 군수가 되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올해부터 신설된 원전세와 기존 원전지원금을 10년동안 모으면 3천억원인데 여기에 국·도비와 민자를 보태 6천억~1조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어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어가 경영 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인삼·복분자 등 틈새작목 육성이 그 대안이다. '젊은 영광, 강한 영광, 신바람 영광'을 슬로건으로 군민통합과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운영에도 힘을 쏟을 요량이다.

무소속 강 후보는 "지방자치 10여년동안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로 경제·복지 등 모든 분야가 낙후돼 원성이 높다"며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로 영광을 '활기찬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다.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들고 원불교 최초 발생지인 영산성지의 사적지 지정, 해변지역 관광개발 등 문화관광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여성대학 설립 등 교육복지분야의 공약도 내놓았다. 계층간·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일체감 조성을 군정 제1의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두 후보는 각각 당 조직력과 인물론을 앞세워 팽팽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주민 갈등 치유할 '통합 리더십' 절실

백수읍 출신 동갑내기 맞대결 '흥미'